

추석 선물로 지역 카드·상품권 어때요

광주상생카드 5% 추가 할인 체크카드도 허용 '이용자 확대' 온누리모바일상품권 10% 할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수익 증대와 전통시장 수요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과 지역화폐 혜택 확대에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혜택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에 한해 5% 할인했지만 이번 특별할인에는 추가 5%에 체크카드까지 포함했다.

이번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판매규모는 300억원이지만 추가로 할인하는 5%에 대한 지원예산인 30억원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할인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지원 대상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한다.

선불카드의 경우 구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당월 이용 할인액에 대해 다음달 카드 연결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은행 전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20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했지만 출시 4개월동안 100억원 판매에 그쳤다. 하지만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10% 특별할인을 한 결과 한달여만인 지난달 31일 2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맞아 특별할인을 지속해 상품카드 판매 흥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8천여만원이고 올해도 지난 7월말 기준 5천200여

만원에 그쳐 저조한 상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구매 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일반 시중은행(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한, 우체국, 우리·신한·국민·광주은행 등)에서 판매 중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확대를 위해 그동안 종이류와 전자카드로만 판매하던 온누리상품권을 4일부터 모바일로도 발행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광주은행 등 6개 참여은행의 앱에서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다.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며, 결제 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개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2천억원 발행 시까지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매월 5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 2천억원 초과 시 연말까지는 6%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광주은행, 전남대병원에 환아복 선물 광주은행은 지난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중국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용 전남대병원장, 국훈 전남대병원 어린이병원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주말 태풍에 수확기 앞둔 전남 농가 비상

장마에 습기 머금어 바람에 약해 배·사과·단감 등 과일은 낙과 우려

여름 장마에 이어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데 이번 주말 태풍 영향권에 들 예정이어서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쌀과 배, 사과, 감 등 대부분의 알곡이 수확을 앞둔 적숙기 상태로 매달려 있는데 가을 장마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 강한 바람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바람에 약한 벼농사인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이 많이 심어지는데 배와 단감 등이 대규모로 심어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심어진 15만3천ha 배 가운데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은 4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 피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은 키가 80cm로 다른 벼 품종보다 5~10cm가 더 커서 바람에 잘 쓰러지고 습기가 많고 날씨가 더워지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수발아(수확기 법씨에서 받아되는 현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생종은 지난달 말부터 수확을 마쳤지만 중만생종 벼는 보통 다음달 초부터 11월 초까지 수확하게 돼 수확기 날씨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추석을 맞아 한참 출하 중인 배와 사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나주배 원형에 따르면 배 재배 면적은 1천990ha 정도로 지난해 가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평년작 수준으로 작황이 회복됐다.

농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상품(上品) 과실 중 70% 정도는 수확을 마쳤지만 나머지 30%와 수

출 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물량들은 아직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는 수확했지만 60%는 아직 채 익지 않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과실을 따고 포장하는 등 일손이 바쁜 상황에 또 다른 과실을 따낼 여려도 부족하다.

545ha에 심어진 사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추석 물량 손질에 태풍이 비껴가거나 약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2천673ha로 배보다 더 많은 단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성숙해져 있지만 아직 수확기가 되지 않아 바람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풍의 세기에 따라 피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에는 유자 798ha, 복숭아 710ha, 무화과와 포도가 각각 668ha, 189ha 정도 심어져 있다.

도철7자 douls18309@srb.co.kr

기아 '쏘울 부스터EV', 친환경기술력 홍보

광주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참가

기아자동차가 자랑하는 전기차 '쏘울 부스터EV'가 광주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참가해 뛰어난 친환경 기술력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별도 기업 부스를 마련하고, '쏘울 부스터EV'와 '니로EV'를 전시했다.

친환경기술 및 환경오염저감 관련 산업전시회인 2019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호남권 유일 국제산업전시회로 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시기간 동안 기아차 전시관에는 자동차 전문가인 카 마스터가 상주해 기아차 부스를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기아차의 친환경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고, 쏘울 부스터EV 등 기아 전기차의 우수한 기술과 성능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산업전에 전시하게 된 쏘울 부스터EV는 기아차 R&D 기술력의 집약체로, 1회 충전 시 기아 전기차 최장 주행거리인 386km를 운행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W의 출력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부하 토크 영역에서의 효율을 증대시킨 모터를 장착했다.

또 최장의 주행거리를 위해 기아차는 쏘울 부스터EV에 기존 쏘울EV(30kWh) 대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64kW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다.

또한 EV 모델에만 적용된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스마



기아자동차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기업 부스를 마련하고, 쏘울 부스터EV를 전시했다.

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등으로 더욱 스마트한 주행이 가능하다.

기아차는 이번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통해 기아차의 친환경 기술력의 집약체인 쏘울 부스터EV에 대한 호남지역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금호타이어, 레버쿠젠과 공식 파트너십

2020·2021시즌 후원 계약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독일의 명문 축구구단 바이엘 04 레버쿠젠과 2020·2021 시즌까지 2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레버쿠젠의 홈구장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아레나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과 루디 펠러 바이엘 04 레버쿠젠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엘 04 레버쿠젠의 공식 파트너로서 선수 유니폼 소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호스피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 등이 포함돼 있어 금호타이어는 앞으로도 자동차 강국인 독일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904년 창단된 축구 클럽 바이엘 04 레버쿠젠은 '갈색 폭격기'로 불리며 역대급 공격수로 꼽혔던 차범근과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중심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토트넘 핫스퍼)를 잇게 한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축구구단 바이엘 04 레버쿠젠과 2020·2021 시즌까지 2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팀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친숙한 클럽이다.

전대진 사장은 "토트넘에 이어 레버쿠젠과 같은 세계적인 클럽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의 금호타이어 고객들과 레버쿠젠 팬들에게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고려시멘트, 사실상 레미콘사업 철수

"시멘트 사업에 집중할 것"

㈜고려시멘트 레미콘 광주공장이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오는 2022년까지 레미콘 광양공장도 임대해 주고 있어 고려시멘트는 사실상 레미콘 사업부문에 철수할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시멘트는 최근 레미콘 사업부문 광주공장이 임대차 계약이 끝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생산을 중단한 레미콘 광주공장 매출액은 지난해 159억원 규모로, 고려시멘트 전체 매출액에서 18.5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장성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멘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25일부터 입차 운영했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대인

계약기간 연장 협의의 거절로 생산이 중단됐다.

레미콘 광양공장도 다른 기업에 2022년까지 임대해 주고 있다.

고려시멘트는 주력사업인 시멘트 부문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레미콘 사업부문은 시멘트사업부문에 비해 사업 규모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고려시멘트 직원은 광주공장을 임대하는 기업에 승계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에 본사를 둔 고려시멘트는 시멘트,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지역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857억7천572만 매출을 기록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LX 광주·전남본부, 추석 맞이 봉사활동 눈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 누리지봉사단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평안의 집 등 노인요양시설 2곳에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권 본부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해 어

르신 말벗 도우미와 식사 보조를 지원했다. 또, 각 시설에 성금 100만원씩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권 본부장은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이번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런던에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 개관

삼성전자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Samsung KX)'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삼성 킹스크로스'가 위치한 영국 런던 북부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은 과거 산업 혁명 시기에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문화 명소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동지를 들고 있는 테크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킹스크로스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콜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쇼핑몰 최상층에 1천858㎡ 규모로 자리

잡았다. 콜 드롭스 야드는 예전 석탄을 화물열차에 옮겨 싣던 장소를 유명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북런던 최대의 쇼핑단지이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혁신적인 IT 기술과 제품이 런던의 문화, 예술과 어우러진 디지털 놀이터로 때로는 패션쇼 무대, 쿠키쇼, 콘서트홀 등으로 변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패션, 요리,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IT 제품·서비스가 융합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